

13cm 폭설에 시민들 엉금엉금... 하늘·바닷길은 통제

호남권 눈폭탄... 낙상·교통사고 잇따라

광주 이면도로 등 곳곳 빙판에 낙상사고 속출... 교통사고 등 23건 신고 광주공항 36편 전면 결항... 전남 해상 여객선 53개 항로 중 3개만 운항

광주·전남에 13cm가 넘는 기습 눈폭탄이 쏟아진 23일 낙상과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하늘길·바닷길이 통제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광주 곳곳 이면도로와 골목길, 급경사지 등지가 빙판길로 변해 시민들의 낙상 사고가 속출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22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광주소방본부에는 낙상사고 23건, 교통사고 6건, 안전조치 4건 등 23건의 눈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소방본부에는 20건(낙상사고 4건, 교통사고 13건, 안전조치 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이면도로에서 만난 정환순(여·76·서구 농성동)씨는 이웃집에 출반찬 거리를 머리에 지고 나왔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졌다며 하소연했다.

정씨는 "마스크를 쓰고 걷다 보니 눈 앞이 안 보여서 미끄러져 넘어져버렸다.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 했다"며 "큰 도로야 제설이 잘 되지만 아직도 골목길은 노인들에게 위험천만하다. 제설 작업을 빨리 해 줬으면 좋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화정사거리에서 만난 설정래(여·80·화정동)씨 또한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가는 길에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끌고 나온 유모차를 더 짊어지고 걸었다.

설씨는 "집 앞에는 골목길이라 눈이 안 치워지고 혼자 못 치워서 미끄러워서 몇 번을 미끄러질 뻔 했다"며 "병원을 매일 가야 해서 눈이 오면 한숨부터 나온다. 근처에 눈길에 뿌려 놓을 모래도 없고 제설 작업도 하나도 안 돼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임수현(32·운암동)씨 또한 "북구 운암동 경신여

고 인근 이면도로가 제설이 하나도 안 됐다. 언덕길이 가팔라서 눈만 왔다 하면 차 사고가 나는 것을 솔하게 봤는데, 올해도 반복될 모양이다"며 "우리 가족은 이곳을 지날 때 야에 신발에 등산할 때 신는 '아이젠'을 차고 다니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에는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송정공원역 앞 도로에서 버스정류장으로 들어섰던 02번 시내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멈춰 있던 98번 시내버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98버스에서 하차 중인 승객 3명이 다쳤다.

22일 밤 9시 10분께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에서는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신호등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3일 오전 8시 30분께에는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도로 시설물을 충격해 1명이 경상을 입었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통제됐다. 목포·완도·여수·고흥에서 운항하는 해상 여객선은 전체 53항로 83척 중 50항로 67척이 통제됐다.

광주공항에서는 23일 운항 예정이었던 출발 18편, 도착 18편 등 총 36편 전편이 결항했으며 여수 공항에서도 출발 7편, 도착 7편 등 14편이 결항했다.

한편 2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광주 광산구에는 13.8cm, 장성 11.5cm, 화순(이양) 9.6cm, 함평(월야) 8.8cm, 진도 8.7cm의 눈이 쌓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3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 설정래씨가 빙판이 된 언덕길을 유모차에 의지해 오르고 있다(왼쪽). 북구청 직원들이 운암동 광주예술의전당 후문 산책로에서 송풍기를 이용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북구청 직원들이 운암동 광주예술의전당 후문 산책로에서 송풍기를 이용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글로벌 교육으로 대전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23일 올해 글로벌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글로벌 교육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글로벌 교육' 실현을 위한 3대 역점과제로 교육의 기반을 회복하는 맞춤형 교육, 지역과 공

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글로벌 교육을 제시했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인공지능(AI)·에듀테크 활용,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등 학교 현장의 자율성에 기반한 수업 대전환을 통해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고, 진로·진학·취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기자 bigkim@kwangju.co.kr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하라”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 하청 광양지회는 2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을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서 포스코의 불법파견이 인정되고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포스코에서는 24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로 사망했고 이중 사내하청노동자는 19명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포스코는 불법파견, 불법경영을 하면서 소송에 참여한 하청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기자 kdi@

1415만원짜리 ‘무등산 적설계’ 눈 오니 먹통

광주기상청, 관측소 12곳에 레이저형 설치...3개월만에 고장

광주지방기상청이 1400여만원을 들여 무등산 장불재에 설치한 레이저 적설계(쌓인 눈의 깊이를 재는 장치·사진)가 3개월만에 먹통이 됐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광주·전남에 13cm가 넘는 눈이 내린 가운데 무등산 장불재에 설치된 레이저 적설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무등산 장불재 자동기상관측소(해발고도 912m)의 레이저형 적설계는 지난해 10월 31일 설치된 이달 1일부터 공식 가동됐다.

레이저형 적설계는 80cm×80cm 크기의 적설판에 눈이 쌓이면, 이 눈에 레이저를 비추 적설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장비 한 개당 가격은 1415만원에 달한다.

기상청은 신뢰·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장비를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광주 내 자동기상관측소 96곳 중 12곳에 레이저형 적설계를 새로 설치

했다. 무등산에 레이저형 적설계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적설계가 먹통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에서는 "CCTV로 확인해보니 눈이 충분히 쌓였는데도 적설량 측정이 안 되고 있어 고장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한편, 장비 관리를 담당하는 관측과에서는 "산악지역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어 적설계 측정할 수 있는 기준만큼 눈이 쌓이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상청은 내린 눈이 녹아 산길 통행이 원활해지는데도 관측소에 들러 기계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비를 수리하려면 기술자들이 산길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눈이 쌓여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점검이나 보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산악지역에 처음으로 적설계를 설치한 만큼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보안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제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학 과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 학 과	○
	한국어교육학과	○
	복지상담융합학부	○
사범	유아교육과	○
	음악학부	○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총 계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 전형일: 2024. 1. 12(금)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 학 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원서접수: 2024. 1. 11(목) ~ 24(수)
▶ 전형일: 2024. 1. 26(금) 오후 2시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 1. 3(수) ~ 6(토)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33길 36